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진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조
- 한국,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 노동자 권리보호, AI 대응 고용정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 적극 추진 중
-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의지 표명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하며, "AI 혜택이 일부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AI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ILO 총회 연설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으며, 이번 제114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다시 연단에 섰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오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김영훈 장관은 총회 기간 중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 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강연 (044-202-7129)
		담당자	사무관	박성국 (044-202-7130)



붙임

제114차 ILO 총회 연설문

존경하는 의장님,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님,
각국 정부와 노사 대표 여러분,

2010년, 저는 한국 노동자 대표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고 성장했고,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AI시대의 변화와 노동 존중의 가치>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산업은 국경을 넘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여기 모인 여러 나라가 가져온 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위기가 중층적이라면 해법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올해 사무총장 보고서는 AI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엠바고(2026. 6. 10.(수) 22:30)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전환을,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전환을, 무엇보다도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합니다.

재투자나, 재분배나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ILO를 만든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 진정한 K-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사람 중심의 AI 전환>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에 두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시대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고용영향 모니터링,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엠바고(2026. 6. 10.(수) 22:30)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 중장년,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 분야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더욱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 산재보험 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신뢰를 만들어 갈 때 기술은 비로소 사람을 위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노사정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따뜻한 지원, 연대와 협력 속에서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를 넘어,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ILO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과 함께 추진 중인 “글로벌 AI 허브”는 AI 기술의 혜택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과 소통의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미래는 우리의 선택>

존경하는 노사정 대표 여러분,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엠바고(2026. 6. 10.(수) 22:30)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존엄을 중심에 둘 것인지, 아니면 효율과 속도만을 앞세울 것인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의 필수 조건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제네바 공화국의 영원한 시민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인간을 위한 AI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모색이 이곳 제네바 ILO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새로운 상상력으로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LO와 함께, 사람을 위한 기술,
존엄을 지키는 노동,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